

# 중국 반체제 물리학자의 행적

## 방려지의 대정부 비판 논문 및 강연록 모음

중국의 대표적 반체제 인사인 방려지의 논문들과 인터뷰 및 강연록을 묶은 책이 간행되었다. 「장벽의 붕괴」(BRINGING DOWN THE GREAT WALL, Writings on Science, Culture and Democracy in China. 336 pp. New York: Alfred A. Knopf)라는 제목의 본서는 중국의 최고 천체 물리학자였던 '책상물림'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었으며, 또한 반체제인사로서 곤욕을 치러야 했던가에 대한 감동적인 기록이다.

이 책속에서 그는 중학교 시절 "길을 걸으면서 수업시간 때의 의문점들을 따져보다가 전봇대에 부딪친 일"을 회상하고 있는데, 그는 "이 순간 대단히 아팠지만 이보다도 그 전봇대에 썩었던 숫자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쩌보면 이 일화야말로 오늘날 그가 처하고 있는 불운과 그의 실용주의적 성격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인 듯하다. 그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전봇대에 부딪친 그 아픔이 아니라 전봇대에 썩어진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지도적 물리학자로서 방려지는 중학교 시절의 일화처럼 숫자를 기억하는 탁월한 능력(즉 뛰어난 물리학자로서)과 함께 한가지 일에 몰두하여 꿈꾸는 능력(새로운 중국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사람으로서)도 더불어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강고한 자유사상가로서 그는 중국사회의 절망적 상태에 깊은 고통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공산당의 고위 정치관료 및 교육관료들과의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중국정부로부터 지난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받았으며, 그해 6월 4일의 인민해방군에 의한 발포가 있자 그와 그의 아내 내는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한 바 있다. 작년 여름에야 출국허가를 얻을 수 있었던 그는 현재 프린스턴에 있

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방려지의 대중성과 명성은 자신의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로서, 安徽城의 저명한 과학기술대학의 부총장으로서 그는 많은 젊은 과학도를 배출해왔다. 탄탄한 삶을 보장받은 그였지만 1957년 공산당의 무위한 논쟁에 대해 입바른 소리를 하다가 당원자격을 박탈당했고 1978년 문화대혁명이 소멸됨에 따라 復黨할 수 있었다. 그후 1987년에 86년의 학생시위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공산당 강경파들의 주목을 받아 또다시 출당처분을 당했으며 또다시 1989년 1월에는 10년전 학생운동으로 인해 여태 구금되어 있던 제자의 석방을 탄원하여 당국자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산당의 미움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재치있고 열정적이며 집요하고 명료한 대정부 비판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들은 방려지의 즉흥발언이든, 준비된 연설이든 대중을 사로잡는 말솜씨에 넋을 잃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정부의 무능과 탐욕 그리고 잔인성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그의 삶은 가끔 소련의 사하로프나 체코의 하벨에 비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방려지는 그들과의 비교, 특히 하벨과의 유사성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며 또한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고 확연한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방려지의 몇되지 않는 동료 가운데 한사람으로서 본서를 번역한 제임스 윌리엄스는 방려지의 면모를 네가지 측면, 즉 첫째는 천체물리학자로서, 둘째는 세계주의자로서, 셋째는 민주주의자로서, 그리고 넷째는 반체제인사로서 조망하고 있다. 번역은 대단히 유려하며 또한 각주마다의 서문도 짚잡고 일목요연하다. 본서를 통해서 방려지는 우리 독

자들에게 예의바르고 용감하면서 때로는 핑계를 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빈정거리면서, 요컨대 사회주의자로서의 면모와 엘리트주의자의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인간적인' 인물로 와닿는다.

방려지의 대정부 비판의 핵심은 지난 80년대 동안 등소평과 중국 공산당이 제시했던 4대강령에 대한 비난에서 잘 드러난다. 당장 중국정부는 4대강령으로서 ① 사회주의에의 지향, ② 프롤레타리아 독재 ③ 공산당의 일당 지도체제 ④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모택동주의의 지도적 역할 등을 계속 지켜나아가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방려지는 이 강령들에 내포된 의미는 거짓 미신, 독재, 보수주의, 그리고 종속에 불과하다고 극렬히 비난하면서 중국대학이 지켜야 할 4대강령을 ① 과학적 정신 ② 민주주의 ③ 창조성 ④ 독립성으로 제시하였다.

방려지는 강연 속에서 민주주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반대자에 대한 인신적 공격이 아니라 참된 다원주의로서 대중들의 공개적인 조사와 회계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며, 모든 종류의 부정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인간은 똑같은 인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정부는 시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원론적 민주주의론에 대해 외국의 저널리스트나 일부 중국인들은 그러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국에 토착화시키기 위한 방도를 그가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에 대해 방려지는 손쉬운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그는 이 즈음에서 중국의 전통적 속담인 "羊頭狗肉"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데, 즉 외면적으로는 현재의 정부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점점 민주주의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방려지 스스로는 사하로프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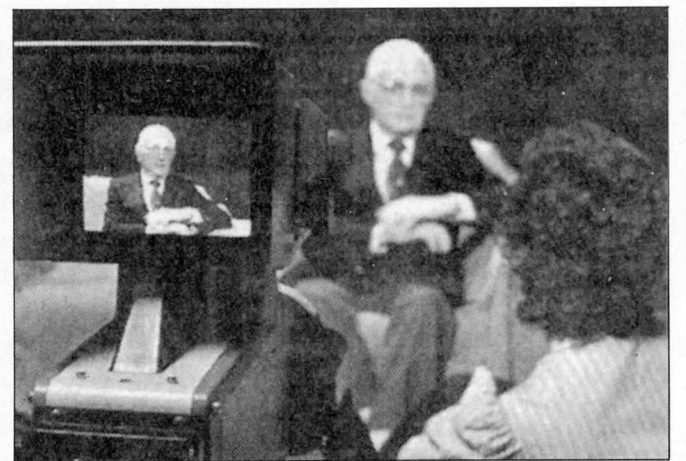
비교를 거부하지만 그러나 번역자인 윌리엄스가 잘 지적했다시피 그의 중요한 역할은 "소련에서 사하로프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역시 과학의 명성을 이용하여 정치의 허가대상으로 묶여있던 사상들을 일반적인 개혁의 과정으로 이끌어낸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유태인 생존자 VTR 증언의 비평적 관점

지난 10여년동안 유태인 대학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나치의 학살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과 보존이 확충됨에 따라 더욱 촉진되었다. 수집된 정보 가운데 중요한 부분

랭거씨는 이미 앞서 「대학살과 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저서를 통해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유대인들의 심리적 문제와 도덕적 정서를 폭넓게 다루어 온 사람이다. 그런데 이 책이 문헌적 자료를 통해 학살문제를 다루었다면 「대학살의 증언」은 예일 대학 포툰오프 비디오 자료실(Fortunoff Video Archive)에 비치된 1400여 생존자 증언 테이프 가운데 300여편을 자료로 삼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대략 세가지의 주요 테마를 다루고 있다. 첫째는 생존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통적인 부분과 특수한 경우로 나누어 이들을 최대한 충실하게 정리, 기록하려는 부분이다. 주로 年代나 교과서화된 기록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대개 '공통된 기억'으로 포괄할 수 있는데 반해서, 때때로 개인의 처절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깊숙한 기억'을 진술하기도 한다. 랭거씨는 이들 두 부분



랭거교수의 「대학살의 증언」은 300여편의 생존자 VTR증언 테이프를 자료로 삼았다.

은 공포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이다. 세월이 이미 슬하하게 흐르고 난 오늘날, 많은 생존자들은 다시 생각하기에 괴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들의 경험을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 담는 데에 찬동하고 있다.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증언은 1980년 이후의 추세인데 지금은 그 숫자가 수천부를 헤아리고 있다.

현재 시몬스 대학에서 영어 교수로 재직중인 로렌스 랭거(Lawrence L. Langer)에 의한 「대학살의 증언」(HOLOCAUST TESTIMONIES, The Ruins of Memory, 216 p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은 이러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한 인터뷰들을 주제로 삼아 몇몇 비평적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본서를 직조하고 있다.

공통된 기억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으나, 랭거씨는 특히 깊숙한 기억에 바탕을 둔 초벌의(?) 개인적 증언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묵묵부답 뿐만 아니라 진술자들이 증언하는 가운데 기억속에서 되살아나는 공포스럽고 잔인하며 억압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진술을 얻어내는 데의 어려움도 지적한다. 가령 굶주림, 고문,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정황속에서의 자신을 회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가. 이러한 이치의 不在, 도덕적 질서의 붕괴, 나아가 삶 자체의 총체적 붕괴에 직면하여 진술자들은 공통된 기억을 진술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의 두번째 주제는 인터뷰하는 과정 그 자체에 따른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많은 증언자들은 인터뷰하는 과정에도 그들의 비합리적 경험이 남들에게 이해될 수 없으리라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허탈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랭거씨는 "고통스러운 기억의 씨앗이 불신의 땅위에 뿌려지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증언자는 "가령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겪은 경험을 말한다든, 나라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사실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일을 함께 겪었어야 하는데... 누구도 정말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당신(인터뷰어)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조차도 믿지 않는 일이니 원."

그러나 랭거씨는 이러한 생존자들과 일반 독자들 사이의 "연결되지 않는" 기억들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이 증언속의 복합적인 목소리, '당신들은 믿을 수 없을 거예요'라는 진술과 '당신들은 믿어야만 해요'라는 내밀한 외침은 결국

밀접히 관련된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번째 주제는 생존자의 경험 가운데 남아 있는 소설적 요소를 탐색시키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는 대학살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생존자들의 "불굴의", 또는 "무너지지 않는" 또는 "고귀한" 인간정신의 예화에 대해서는 단연코 선을 긋는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말들은 희생자들의 고통스러운 복합감정과 관련이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그 자료들 속에서 "불굴의 인간정신"을 찾으려 애쓰으로써 "우리가 들었던 바의 것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사이의 첨예한 대치를 없애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웅주의의 탐색, 말하자면 非神話化 작업은 유용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랭거씨는 이 점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작업을 행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영웅주의와 殉敎의 개념이 이미 우리들 대부분에게 있어 대학살의 희생자와 생존자들에게 바치는 추모의 인식들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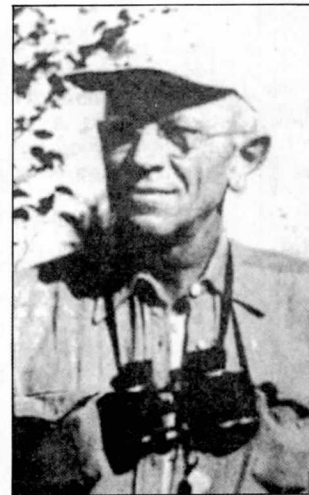
## 자연보호운동의 선구자 레오파드 유고집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사실 알도 레오파드(Aldo Leopold: 1887-1948)는 존 워드, 라첼 카슨과 아울러 자연보호주의의 선구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1949년에 발간했던 「어떤 사막 郡 연감」은 그의 자연보호주의에 대한 교의를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어린 시절 미국 서남부의 황무지에서 사냥을 즐겼던 그는 자신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어미 늑대에게서 느낀 연민과 동정에서부터 그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1920년대에는 위스콘신 대학교 미 연방 삼림청과 함께 몇몇 분야에 관한 탁월한 연구를 행함으로써 야생생활에 대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 전세계적인 자연보호운동의

추세에 걸맞게 그동안 오래도록 묵혀왔던 레오파드의 遺稿가 선별되어 한편의 책으로 묶여나왔다. 미주리 대학의 사학과 교수인 수잔 플래더와 위스콘신 대학의 철학교수인 캘리코트에 의해 편집된 「神의 젓줄로서의 江」(THE RIVER OF THE MOTHER OF GOD, AND OTHER ESSAYS.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이 그것이다.



알도 레오파드(1887~1948)

본서는 어떤 사고의 전환이 보여 줄 수 있는 것보다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훌륭한 지성사를 보여준다. 우선 레오파드씨는 자연의 생물에 대한 전통적 지식을 받아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를 실제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과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검증해 보며, 그리고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자연에 대한 지식으로 발전시켜 그의 유명한 자연의 윤리학을 수립한다.

나아가 이 책은 잊혀진 자연보호주의의 선구자 레오파드 개인에 대한 전기적 자료와 편집자들의 우려한 서문이 있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준다. 가령 20세기 초엽의 미국인들의 땅과 자연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들과 당시 그가 자연보호를 위해 호소한 데 대한 일반 시민들의 무감각에 가까운 반응, 특히 삼림청조차도 그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점들은 독자들로 하여금 안타깝게 하기 그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역시 그 당시와 무엇이 크게 달라졌나를 생각하면 오늘의 우리 주위가 섬뜩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알도 레오파드는 한 사람의 先知者였던 셈이다.

## '뉴욕타임스 북 리뷰' 베스트셀러목록 1991년 5월 19일 현재

순위	소설	비소설	페이퍼백 소설	페이퍼백 비소설
1	LOVES MUSIC, LOVES TO DANCE 메리 허킨스 클라크(시몬 & 셔스터) 맨하탄의 두 여성이 연쇄살인을 추적한다.	NANCY REAGAN 키티 갤리(시몬 & 셔스터) 전 퍼스트 레이디 전기.	MESSAGE FROM NAM 다니엘 스틸(델) 여성저널리스트 시대가 시작된 1960년대와 70년대.	IT WAS ON FIRE WHEN I LAY DOWN ON IT 로버트 풀럼(아이비) 영감이 가득찬 에세이.
2	'H'IS FOR HOMICIDE 슈 그레프톤(홀트) 보편 사기를 친 두 허수아의 포리를 밝은 킨에이 밀론의 은밀한 추적.	YOU'LL NEVER EAT LUNCH IN THIS TOWN AGAIN 줄리아 필립스(랜덤 하우스) 아카데미 수상자에 의해 그려진 할리우드의 생활.	RED DRAGON 토머스 해리스(델) FBI 퇴역요원이 연쇄살인의 추적에 뛰어들다.	ALL I REALLY NEED TO KNOW I LEARNED IN KINDERGARTEN 로버트 풀럼(아이비) 영혼을 울리는 에세이.
3	THE FIRM 존 그리섬(더블데이) 비밀리에 고용된 젊은 변호사가 그의 회사에서 비합법적 행위들을 배우게 된다.	IRON JOHN 로버트 블라이(에디슨-웨슬리) 다양한 문화를 접해온 한 남자의 소년시절부터 성인기까지의 인생 경로.	THE SILENCE OF THE LAMBS 토머스 해리스(세인트 마틴스) FBI의 남녀 첩보요원이 연쇄 살인자를 추적한다.	MEN AT WORK 조지 F. 빌(하퍼 페네이얼) 정치익살꾼과 야구광의 게임기술 묘사.
4	OH, THE PLACES YOU'LL GO! 세우스(랜덤 하우스) 문제의 해결은 인생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있다.	THE COMMANDERS 밥 우드워드(시몬 & 셔스터) 부시 행정 2년동안 어떻게 대통령과 군고위장성들이 정책 결정을 내렸는가.	AN INCONVENIENT WOMAN 도미니크 윈(랜덤) 로스앤젤레스 상류사회에서의 윤리와 도덕과 살인.	THE ROAD LESS TRAVELED M. 스킵트 펙(테치스턴/S & S) 영혼적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5	THE SEERESS OF KELL 데이빗 에딩스(델레이/발렌틴) 공상소설 「멜로린」의 다섯째 권.	THERE ARE NO CHILDREN HERE 알렉스 코틀로비츠(더블데이) 시카고 가에서 성장한 두 형제의 이야기.	THE CAT WHO LIVED HIGH 릴리언 잭슨 브라운(조브) 기자와 두마리 고양이가 의문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한다.	FROM BEIRUT TO JERUSALEM 토머스 L. 프리드만(양코르/더블데이) 아랍과 이스라엘간의 지난 10년간의 갈등역사.
6	HEARTBEAT 다니엘 스틸(텔라코트) 확고한 직업을 가진 두 남녀의 만남의 기회가 그들의 애정문제를 해결해 준다.	MOVING PICTURES 엘리 맥그로(랜덤) 1970년대 영화스타가 기록 심했던 생애의 뒤안길을 들여다본다.	MASQUERADE 자네트 테일러(리틀, 브라운) 뉴올리언스에서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여성숙인이 니스의 카니발에서 만났던 남자와 우연히 마주친다.	THE ROAD FROM COORAIN 질 케어 콘웨이(랜덤) 오스트레일리아의 양떼 목장에서 보냈던 한 역사가의 어린시절.
7	BRIGHT CAPTIVITY 유제니아 프라이스(더블데이) 1812년 전쟁동안 영국인에 의해 시몬스섬에 붙잡혀온 대농장주 딸의 사랑.	A HISTORY OF THE ARAB PEOPLES 엘버트 후라니(벨크넵/하버드대학) 마호멧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서술.	THE STAND 스티븐 킹(스그렛) 지구 최후의 날이 미국에 공포를 물고온다.	NO ONE HERE GETS OUT ALIVE 제리 홉킨스/테니 슈거만(워너) 도어스의 싱어로 이끈 짐 모리스의 생애.
8	AS THE CROW FLIES 제프리 아서(하퍼 콜린스) 할아버지의 영감을 받은 런던의 한 상인이 세계제일의 상점을 꿈꾼다.	MY FAVORITE SUMMER 1956 믹키 맨틀, 필 피프(더블데이) 뉴욕 양키즈팀의 중견수와 홈런주자였던 한 선수의 회고.	FAMILY PICTURES 슈 밀러(하퍼페이퍼백) 지난 40년간 대 시카고 도당의 굴곡많은 시대.	STORMIN' NORMAN 잭 앤더슨, 데일 반에타(제브라) 노먼 슈바르츠코프의 지난 이야기.
9	THE SEVENTH COMMANDMENT 로렌스 샌더스(퍼트남) 그녀는 백만장자의 살해자를 추적하던 중 보편회사가 조사원에게 유혹당한다.	LIFE IS TOO SHORT 믹키 루니(빌라드) 영화계 대스타의 자서전.	DANCES WITH WOLVES 마이클 블레이크(포셋) 남북전쟁 때 한 군인이 인디언의 생활방식을 받아들여 이면서 그들의 원죄와 싸워나간다.	NOT WITHOUT MY DAUGHTER 베티 맬무디, 윌리엄 호퍼(세인트 마틴스) 적대감을 가진 남녀에 의해 이란에서 붙잡힌 미국인 여성의 시련.
10	ASPEN GOLD 자네트 테일러(리틀 브라운)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 여인이 그녀의 고향 콜로라도로 돌아간다.	IN OUR DEFENSE 엘렌 앨더만, 캐롤린 케네디(도로) 명예혁명 직후 선포됐던 권리장전이 어떻게 오늘날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끼쳤는가.	STARDUST 로버트 B. 파커(버클리) 사립탐정 스펜서가 유명한 TV텔레트를 보호하자 사건이 일어난다.	THE SEARCH FOR THE GREEN RIVER KILLER. 칼튼 스미스, 토머스 길런(웨닉스) 워싱턴 스테이트에서의 연쇄살인.